



반도체 수출 호조와 올해 우리 경제 성장

거시경제분석과 김원혁 분석관

검토 배경

▪ 2026년 우리 수출은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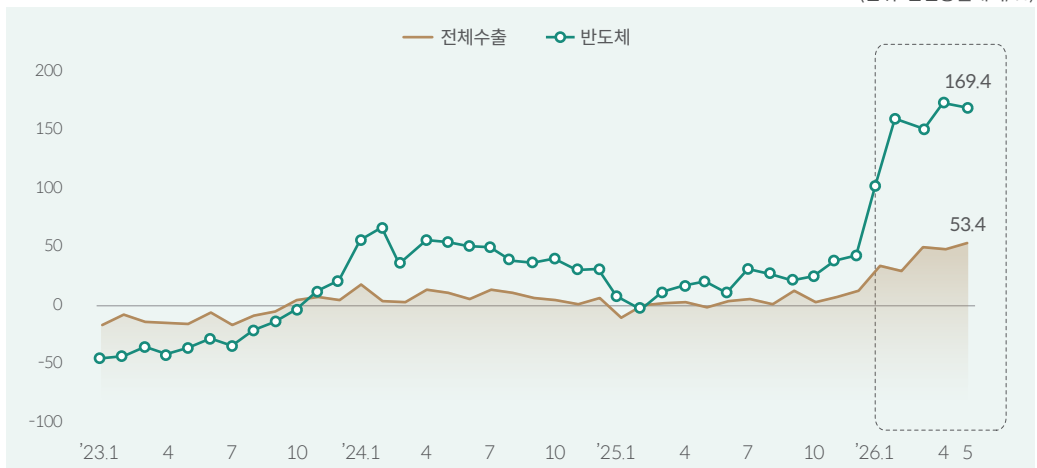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3.4% 증가한 878억 달러를 기록
 - 1~5월 누적 기준으로는 수출이 전년대비 43.5% 증가하였으며, 최대 금액을 기록
- 1분기 전년대비 GDP 성장률 3.8%에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8%p로 순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의 약 47.4%를 견인하였음

▪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이 주요 배경

- AI 데이터센터와 학습·추론용 AI 관련 투자 확대에 고부가가치 메모리(HBM·D램·SSD) 수요가 크게 증가
- 5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9.4%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3%를 기록

[그림 1] 전체 수출과 반도체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관세청, 무역협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AI 투자에 따른 수출 호조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평가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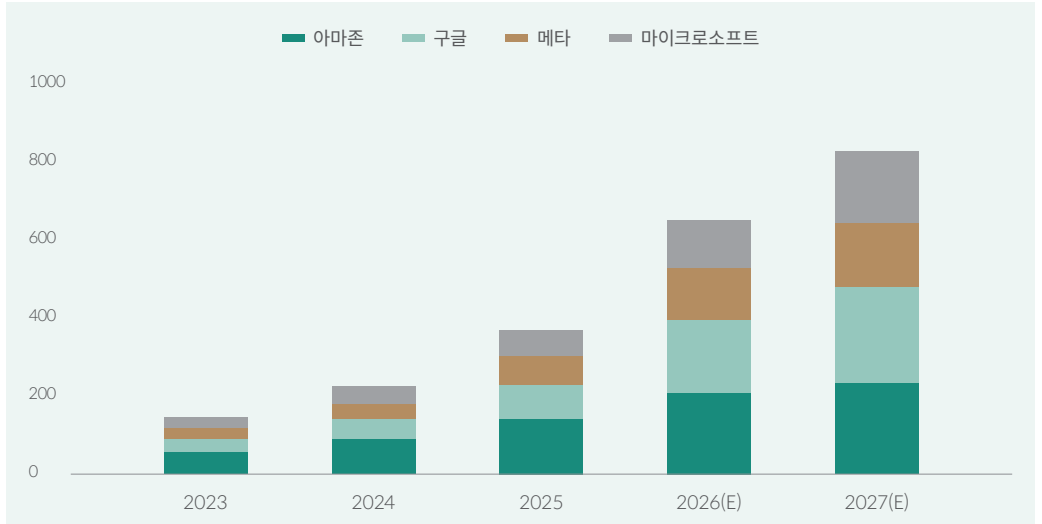
- 이번 반도체 수출 호조는 지금까지의 메모리 위주 반도체 호황과 달리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구조적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수출 실적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가운데 글로벌 AI 투자와 우리 수출의 연결고리를 살펴보고 수출 호조의 경제 성장 기여 효과를 분석·평가하고자 함

글로벌 AI 투자 현황

- '26년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지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글로벌 AI 산업 투자를 주도
 - 올해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지출은 전년보다 81.5% 증가한 6,877억 달러로 전망¹⁾
 -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각 개별기업의 자본지출이 '26년에 모두 1,00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25년 주요 빅테크 기업의 매출액 대비 자본지출 비율은 25%로 이는 과거 빅테크 기업의 투자 (10~15%)와 제조업 평균(8~12%)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

[그림 2] 주요 빅테크 기업의 자본지출 현황과 전망

(단위: 십억달러)



주: 자본지출 예상치는 Bloomberg Consensus 수치
 자료: Bloomberg

- AI 주도권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글로벌 AI 투자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26년 영업활동현금흐름 대비 자본지출 비율²⁾이 90%에 이를 정도로 벌어들이는 현금의 대부분을 다시 투자하며, AI 인프라 및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음
 - '26년 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 대비 자본지출 비율은 메타 98.3%, 아마존 94.4%, 구글 90.1%, 마이크로소프트 64.8% 수준으로 예상³⁾
 - 자율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와 로봇·자율주행 등으로 확장되는 피지컬 AI가 새로운 AI 인프라 수요를 창출하며 주목받고 있음
 - 한편, AI 인프라 투자의 수익화가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본지출 급증에 따른 감가 상각비 부담 확대와 잉여현금흐름 감소 등 재무적 압박이 누적될 경우,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모멘텀이 향후 둔화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1) Bloomberg Consensus를 참조하였음(26.06.16 기준)

2) 영업활동현금흐름 대비 자본지출(CAPEX/OCF) 비율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중 얼마를 설비·인프라 투자에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① 시장 경쟁 강도와 ② 내부 자원 여력을 함께 보여준다. 최근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동 비율이 90% 수준에 달하는 것은 먼저 버는 돈 대부분을 AI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공격적 성장 국면으로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그만큼 치열함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는 내부 자원만으로 투자 비용 총당이 가능하나 추가 투자를 위해서는 외부 차입이나 AI 사업의 수익 창출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Bloomberg Consensus를 참조하였음(26.06.16 기준)

우리나라 수출과의 연결 고리

- **글로벌 AI 투자 확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며 우리 수출수요로 직결**
 - AI 산업이 학습 단계에서 추론으로 확장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크게 확대
 - 학습 단계에서는 연산능력이 중요하며 엔비디아의 GPU 같은 연산 장치가 주목받았다면, 추론 단계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고성능·고용량 메모리 반도체가 핵심 부품으로 부상⁴⁾
 - HBM(고대역폭 메모리)뿐만 아니라 D램·NAND 수요를 동시에 견인하며 메모리 전반의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
 - 우리나라는 HBM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AI 투자 확대의 직접적 수혜로 연결

- **우리 수출은 반도체·SSD 등 고부가가치 AI 핵심 부품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
 - 1~5월 중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했으며, SSD 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248% 증가
 - 메모리반도체 중 D램은 전년동기대비 304%, HBM 등 복합구조칩도 153% 증가했으며, AI 서버용 SSD 수요도 크게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306% 증가

[표 1] 올해 우리나라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규모와 증가율

품목	금액(억 달러)	증가율(%)
반도체(MTI831)	1,476	153
전자집적회로(HS8542)	1,154	140
메모리반도체(HS854232)	945	223
D램(HS8542321010)	402	304
복합구조칩(HS8542323000)	380	153
컴퓨터 및 주변기기(MTI813)	158	248
SSD(HS852351)	148	306

주: 1~5월 누적수치
자료: 무역협회

- 메모리반도체·고용량 SSD 등 제품의 수출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출 금액이 증가
 - D램 가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5월 기준 반도체의 수출가격 증가율은 163%로 나타났으며, SSD 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수출가격 증가율도 124%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 1분기 GDP 실적치를 살펴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가격이 높아지면서 해외에 수출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수출 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대비 23.5%로 큰 폭으로 상승⁵⁾

4) ① GPU의 연산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라진 반면, 메모리 반도체가 데이터를 보내주는 통로(대역폭)은 상대적으로 느려 발생하는 이른바 '폰 노이만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② ChatGPT나 Claude와 같은 대형언어모델(LLM)이 커질수록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저장하고 꺼낼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해지면서 구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5) 참고로 1분기 GDP디플레이터는 12.9% 상승한 가운데 내수는 2.1%, 수출은 23.5% 그리고 수입은 1.6% 상승했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수주형 장기공급계약 구조로 전환, 수출 호조세의 구조적 지속 가능성 확대

- 최근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확대되면서 계약기간이 1~3년인 LTA(Long Term Agreement)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계약도 늘어나고 있음
- 또한, HBM 등 AI 반도체 중 일부는 설계 단계부터 생산 및 공급계획이 확정되는 주문제작형 수주로 진행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수출 연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최근 주요 전망기관들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음

- 한국은행('26.05.29)과 KDI('26.05.13) 등 국내 주요 전망기관에서는 반도체 수출 개선세,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하여 '26년 성장률 전망치를 0.6%p 상향 조정하였음

▪ 수출 호조의 성장 기여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올해 실질 GDP와 명목 GDP를 큰 폭으로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반도체 수출가격과 물량 증가추세를 이용하여 반도체 수출 호조의 성장 기여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실질 GDP는 약 0.8%p, 명목 GDP 성장률은 약 6.6%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 ※여기에서는 예상을 상회하는 최근의 반도체 경기 호조가 연말까지 이어지는 상황만을 가정하고 있으며, 중동전쟁, 관세정책 등 불확실한 국제 상황과 유가 및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 등 여타 국내 상황 및 정책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
- 한편, 실질보다 명목 GDP 성장률이 크게 높아진 것은 수출 물가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는 수출입 상품 간의 교환 비율인 교역조건 개선을 통해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

[표 2] 반도체 수출 호조의 성장 기여 효과 추정 결과

	실질 GDP	명목 GDP
올해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	0.8%p	6.6%p

주: 지난 전망(2026년 NABO 경제전망, '26.03) 대비 성장 기여 효과를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충격,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경제주체·업종 간 성장률 격차 확대로 균형 성장을 위한 대응이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이번 GDP 성장세는 국가 전체의 실질 구매력 증가와 세수 확대 및 정부부채비율 하락 등 정부 재정 부담 완화로 이어지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다만, 성장이 일부 수출 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그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까지 시간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